


활용제목명	오이, 호박 시들증상 원인구명 및 시들음병 진단 요령					
연구개발자	소속기관	경기도농업기술원 (환경농업연구과)	성명	김진영	전화 및 e-mail주소	031)229-5832 kgy5122@gg.go.kr
공동개발자	"	"	"	홍순성	"	031)229-5831
	"	"	"	임재욱	"	031)229-5820

1. 연구성적('04~'07 경기도원)

○ 오이, 호박에서 시들음병(가칭) 진단요령('04~'07 경기도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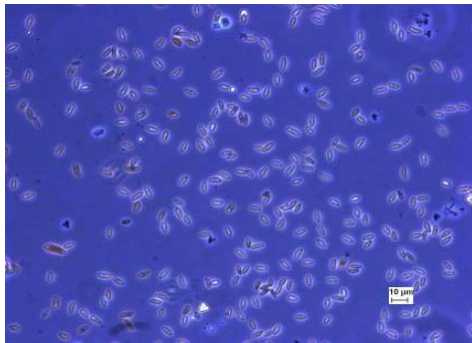
구 분	사 진 자 료	특 성
지상부 (잎, 줄기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적으로 지상부 잎이 황화되고 점차 시들기 시작하고 병이 진전 되면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음 ○ 오이나 호박의 지상부 줄기를 잡아 당기면 지상부위가 쉽게 뽑혀 올라와 덩굴쪼김병과의 차이를 보임
지하부 (뿌리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초기에는 지체부 부위부터 마름 증상을 보이며 점차 뿌리 전체로 확대됨 ○ 병 발생 후기에는 뿌리 전체가 완전히 물러 없어짐 ○ 접목한 대목에서도 병원균이 퍼져 흰색의 군사가 관찰됨

○ 병원균 접종에 의한 박과류 주요 대목의 *Fusarium solani* 의 감수성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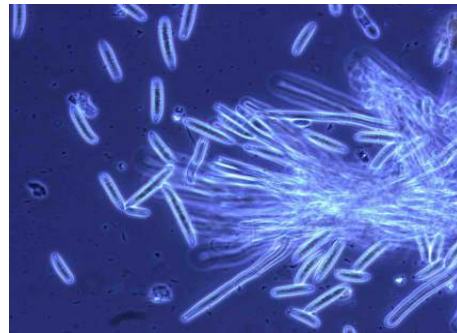
대목명	발병도	주요 증상	
적토좌	2.8		
흑종	3.0		
신토좌	2.2		

※ 발병도 조사기준(0 : 무발생, 1 : 하엽 황화, 2 : 상엽 황화 3 : 시듦, 잎 황화, 4 : 고사)

○ 병원균의 주요 특성



<소형분생포자>



<대형분생포자>

※ 병원균의 생육 최적온도는 30℃이며, 35℃ 이상에서는 생육 불가

2. 적 요

- 연작 재배지의 박과류 시듦증상 원인 구명
 - 기존 Fusarium에 의한 덩굴쪄짐병과는 병원균, 피해 양상이 다름
- 오이, 호박 시듦증상의 주요 원인 병원균은 *Fusarium solani*이며, 퓨사륨 저항성 대목에서도 발생, 피해를 줌('07 국내 최초 보고)
 - 흑종호박, 신토좌 등 기존 대목 감수성임

3. 개발기술의 활용방법

- 오이와 호박 재배에서 지상부가 시들고 지체부와 뿌리가 마름증상을 나타내는 발병주는 시들음병으로 진단함
- 기존 토양병에 저항성 대목(흑종, 신토좌 등)을 이용하여 접목한 오이와 호박도 토양 병 발생 가능성이 있음
- 일반적으로 연작 및 토양 전염하므로 초기 발생시 토양소독, 윤작 등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함
- 시들음병이 심한 농가는 토양소독제(다조메 입제 등)를 이용한 정식 전 토양소독으로 피해 최소화
- 병원균의 발생 특성상 고온기에 발생이 많으므로 하절기에는 작기를 조절하고, 석회 등을 사용하여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등 경종적 방법에 의한 병 회피
- 박과류 시들음병에 관한 팜플렛 제작 배부